

화학기업, 원자재 강세 “부정적”

한국거래소, 4/4분기 영업실적 악화 ... 대한유화·삼성정밀화학도

국내기업들이 2010년 4/4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실적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31일까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10년 4/4분기 영업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7곳 가운데 20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실적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판매가격 하락, 환율 등 다른 주요 원인들에 비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특히 화학, 제지, 식료품 등이 원자재 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유화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구입단가의 인상으로 제품 마진이 축소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고 삼화페인트도 “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원가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손해를 본 화학기업으로는 삼성정밀화학, KPX화인케미칼, 진양화학 등도 포함됐다.

4/4분기 영업이익이 82.9% 감소한 한국제지는 공시에서 “원재료 가격은 급등한 반면 판매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패이퍼코리아 등 다른 제지 생산기업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을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밖에 CJ제일제당 등 식료품 업종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7>